

‘거칠 것 없는 7연승’ 이상혁, 다이아몬드 파이널 우승 도전

10일 독일·16일 폴란드 거쳐 29일 취리히 다이아몬드 파이널 출전
커·바르심·파시노티 등과 경쟁...3번째 다이아몬드리그 우승 노력

올 시즌 무패가도를 달리는 ‘스마일 점퍼’ 이상혁(29·용인시청)이 6일 유럽 원정길에 올랐다. 그는 3주 넘게 유럽에 머물며 10일 오후 9시 15분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하일브론에서 열리는 하일브론 국제 높이뛰기 대회, 16일 오후 10시에 폴란드 실레지아에서 시작하는 세계육상연맹 다이아몬드리그 개별 경기, 29일 오전 0시 53분에 예정된 스위스 취리히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에 출전할 예정이다. 이상혁은 올 시즌 출전한 7개의 국제대회에서 모두 우승했다. 실내 시즌 3개 대회(2월 9일 체코 실내대회 2m31, 2월 19일 슬로바키아 실내대회 2m28, 3월 21일 중국 난징 세계실내선수권 2m31)에서 정상에 오르더니, 실외 시즌에서도 4개 대회(5월 10일 왓그래비티 켈린지 2m29, 5월 29일 구미 아시아선수권 2m29, 6월 7일 로마 다이아몬드리그 2m32, 7월 12일 모나코 다이아몬드리그 2m34)에서 1위를 차지했다. 모나코 다이아몬드리그에서는 도쿄 세계선수권 기준 기록(2m33)을 통과했다. 올 시즌 최고 기록은 2m35를 뚫 다닐 리센코(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아직 세계육상연맹이 주최하는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세계육상연맹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조력국 벨라루스 선수들의 국제대회 출전 제재를 유지하고 있다. 이상혁은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 중에는 올레 도로슈크(우크라이나)와 함께 시즌 기록 공동 1위(2m34)를 달린다. 순위 경쟁에서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절친한 친구인 헤미시 커(뉴질랜드)와 맞대결에서도 올 시즌 4전

4승을 거뒀다. 이상혁과 커는 8월에도 하일브론, 실레지아, 취리히에서 연이어 맞붙는다. 높이뛰기 단일 종목을 벌이는 하일브론 대회 남자 경기 출전자 명단에는 이상혁, 커, 무타즈 예사바르심(카타르), 마르코 파시노티(이탈리아) 등 13명이 이름을 올렸다. 올해부터 하일브론 대회는 바르심이 주최하는 ‘왓 그래비티 켈린지’ 시리즈에 편입됐다. 지난 5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왓 그래비티 켈린지 2025 1차 대회 챔피언은 이상혁이었다. 이상혁은 실레지아에서는 올 시즌 3번째 다이아몬드리그 개별 대회 우승을 노린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한 번씩만 다이아몬드리그에서 우승(2022년 도하, 2023년 유진, 2024년 로마)했던 이상혁은 올해에는 로마와 모나코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해, 벌써 두 차례 정상에 올랐다. 올해 다이아몬드리그는 14개의 개별 대회를 열고 8월 29일 취리히에서 파이널 대회를 벌인다. 남자 높이뛰기를 편성한 대회는 6개다. 이상혁은 5월 도하, 모로코 라바트 대회에 불참하고도 이후 2개 대회에서 우승해 랭킹 포인트 16점으로 3위에 자리했다. 남자 높이뛰기에서는 랭킹 포인트 상위 6명이 파이널에 진출한다. 이상혁은 실레지아 대회에서 상위권에 오르면, 23일 벨기에 브뤼셀 대회에 출전하지 않아도 파이널 진출을 확정할 수 있다. 2023년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에서 우승한 이상혁은 2년 만의 정상 탈환을 위해 도약한다. 이상혁에게 이번 유럽 원정은 ‘9월 도쿄 실외 세계선수권을 위한 최종 모의고사’이기도 하다. 도쿄 세계선수권은 9월 13일에 개막한다. 남자



이상혁이 6일 유럽원정길에 올랐다. 이상혁은 3개 대회에 연달아 출전해 오는 9월 열리는 도쿄세계선수권 대회를 준비한다. 사진은 지난 7월 모나코에서 열린 2025 세계육상연맹 다이아몬드리그 남자 높이뛰기 경기에서 바를 넘는 뒤 기뻐하는 모습. /연합뉴스

높이뛰기 예선은 9월 14일, 결선은 9월 16일에 열린다.	주최 측은 그를 ‘세계실내선수권 챔피언’이라고 소개했다.	이상혁은 “올해 가장 중요한 경기가 9월 도쿄에서 열린다”며 “내년에는 ‘2025 도쿄 아웃도어(실외) 월드 챔피언’이라고 불리고 싶다”고 우승을 열망했다.
이상혁이 올해 실외 시즌 경기에 나설 때, 대회		/연합뉴스

광주시청 고승환, 코사노프 세계컨티넨탈투어 금

200m 1위...랭킹 순위 상승 기대
1500m 이재웅·400m 심민규 금

광주시청 고승환(사진)이 제34회 코사노프기념 세계컨티넨탈투어 브론즈대회에서 금빛질주를 펼쳤다. 고승환은 최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대회 남자 200m 결승에서 20초90에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일본 유다이 니쉬(21초09), 카자흐스탄 비탈리 젠스(21초24)에 앞서 1위를 기록했다. 지난 6월 기록한 개인 최고 기록 20초 45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금메달을 차지하면서 9월 도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출전을 위한 랭킹포인트 순위 상승이 기대된다. 이번 대회에서 이재웅이 남자 1500m(3분 45초 33), 심민규가 남자 400m(46초12)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세단뛰기에서는 유규민에 이어 김장우가 16m07을 뛰면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차지했다. 한편 고승환은 인도 부바네스와르에서 열리는 세계컨티넨탈 투어 브론즈 참가를 위해 7일 출국한다. 고승환은 이 대회를 통해서 도쿄세계육상선수권대회 출전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 도쿄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200m에 출전하려면 기준기록인 20초16을 넘기거나 랭킹순위에 이름을 올려야 한다. 남자 200m에는 48명이 출전해 경쟁을 벌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여자농구 신인 드래프트, 단일리그 역대 최다 40명 지원

수피아여고 이가현·광주대 양유정 등 프로진출 도전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2025-2026 신인선수 드래프트에 2007년 단일리그 시행 이후 역대 최다인 40명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오는 20일 경기도 부천체육관에서 열리는 2025-2026 신인선수 드래프트엔 고교 졸업 예정자 26명, 대학 졸업 예정자 10명, 실업팀 소속 1명, 해외 활동 1명, 외국국적동포 2명을 합쳐 40명이 지원했다. 2007년 개최된 2008 WKBL 신인선수 선발회 당시의 34명을 넘어 역대 최다 인원이 이름을 올렸다.

고교 졸업 예정자 선수 중에는 지난달 2025 국제농구연맹(FIBA) 19세 이하(U-19) 여자농구 월드컵에서 한국을 세계 9위를 이끈 이가현(수피아여고), 최예원(삼천포여고), 홍수현(상주여고), 황윤서(선일여고), 김연진(숙명여고), 이원정(운양여고) 등 국가대표가 다수 포함됐다. 대학 졸업 예정자로는 2024 대학농구 U리그 득점왕인 양유정(광주대)과 최우수선수상을 받은 황재연(부산대), 제41회 전국대학농구대회 최우수상을 받은 이수하(부산대) 등이 지원했다. 재일동포 선수들도 프로 진출을 노린다. 사전시청에서 실업 무대를 뛰고 있는 재일교포

4세 고리미가 실업팀 소속으로, 일본 도쿄의료보건대에 재학 중인 재일교포 3세 양애리가 해외 활동 선수로 참가한다. 양애리는 올해 6월 개최된 WKBL 3X3 트리플 점에 월 소속으로 출전했다. 외국국적동포 선수로는 최재스민(칼튼 칼리지), 원이애나(시에나 하이츠 대학교) 2명이 지원했다. 최재스민은 2022-2023시즌 드래프트 신청 이후 3년 만에 재도전에 나선다. 2025-2026시즌 신인선수 드래프트는 20일 오전 10시 지명 순번 추첨식, 오후 3시에 드래프트가 진행된다. 유튜브 ‘여농티비’, 네이버 스포츠, WKBL 통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생중계된다. /연합뉴스

탁구협회, 유승민 전 회장에 ‘견책’ 징계...관리 소홀 책임

대한탁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징계 결정을 통보한 가운데 현 대한체육회장인 유승민 전 탁구협회장이 ‘견책’ 징계를 받았다. 유승민 전 회장은 5일 오후 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위원장 변창우)로부터 직무 태만 등 행위로 견책 처분을 내린다는 징계 결정서를 이메일로 통보받았다. 유 전 회장은 탁구협회장 재직 시절 발생한 후원 및 기부금과 관련한 인센티브 부당 지급과 국가대표 선수 바퀴지기 등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행 스포츠공정위 규정상 ‘직무 태만’ 행위에 대해선 사안이 경미한 경우 견책 또는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나 감봉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스포츠윤리센터는 탁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금관리 규정을 근거로 유치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한 건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유 전 회장과 함께 김택수(현 인천 국가대표선수촌장) 전 협회 전무도 징계가 ‘견책’으로 결정됐다.

김 전 정무는 2021년 모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한 것과 관련해 10%의 인센티브를 수령했으나 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된 점 등이 고려해 공정위는 ‘업무상 배임’으로는 판단하지 않았다. 또 당시 인센티브 도입은 코로나19에 기인한 협회의 어려운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사적 이익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도 참작했다. 한편 현정화 협회 수석부회장에 대해선 당시 이사회 때 ‘임직원 인센티브제도 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결권을 행사했으나 징계 시효 3년이 지남에 따라 ‘징계 없음’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산책

작전을 앞둔
조선아
Cho Sun A Solo Exhibition

7월 11일 ~ 8월 10일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GAC 전시지원 공모전시
조선아 개인전 : 시간을 담다

일시 : 2025-07-11(금)~2025-08-10(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교향악단 오티움 콘서트 III
'Flute'

일시 : 2025-08-22(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 062-613-8241